

이야깃거리 ①

묘한 의학의 세계

“수월해진 상호적 시험관 아기 기술
Effortless Reciprocal IVF”



“두 명의 여성이 한 아이를 낳을 수 있나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두 여성은 한 아이를 만들 수도 낳을 수도 없습니다. 보통 아이는 결혼을 통해 남녀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죠. 전통적으로도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간의 연합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러한 것이 도덕과 윤리, 건강한 생활에 기초가 된다고 믿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념을 거부한 사람들이 새로운 믿음을 만들어 냈고, 그 신념은 동성끼리의 결혼을 합법화 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신념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의학의 힘을 빌려 두 여성이 한 아이를 낳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과학적 이론을 넘어 실제로 두 여성이 한 아이를 낳은 기록이 있습니다. 2018년 6월, 미국 텍사스 주의 한 커플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커플이 결혼한지 3년즈음 되었을 때였지요. 이

커플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떠돌며 한 연방대법원의 동성혼 합법화 판결이 있던 2015년 6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 사건 속 커플도 두 명의 레즈비언이었고, 2015년 판결 이후, 법적으로 부부가 될 수 있었지요. 이 레즈비언 커플은 도대체 어떻게 두 명에서 한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걸까요?

보통 한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려면 성관계를 통해 남성의 정자와 여성의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어 10개월이라는 긴 임신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임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부부들은 의학의 힘을 빌리기도 합니다. 그 방법들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네요.

1. 전형적인 시험관 아기 시술

(Traditional In-Vitro Fertilization)

남편의 정자와 아내의 난자를 실험실 시험관(실제로는 배양 접시Petri dish위)에서 인공수정을 시켜 배아로 성장하면 이를 아내의 자궁으로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2. 상호적 시험관 아기 시술

(Reciprocal In-Vitro Fertilization / 'Shared Motherhood')

이 기술은 한 여성이 난자를 기증하고, 다른 여성이 아이를 대신 임신하고 출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3. 수월해진 시험관 아기 시술 (Effortless In-Vitro Fertilization)

전형적 시험관 아기 과정은 꽤 비싼 편이라서 비교적 수월하면서도 저렴한 이 기술이 소개되었습니다. 이 기술에는 인보셀(INVOcell)이라는 캡슐이 필요한데요. 이 캡슐은 전형적 시험관 아기 시술 중 큰 비용을 차지하는 5일간량의 실험실 배양 과정(incubation)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부터 난자와 정자를 보호하는 이 캡슐을 실험실보다 더욱 안전하게 적절한 온도, pH밸런스, 산소 등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여성의 질내에서 5일간 배양시킵니다. 5일 후엔, 캡슐을 꺼내서 건강한 배아를 여성의 자궁에 착상시킵니다.

이 실제 사건의 주인공인 커플(애슐리 Ashleigh와 블리스Bliss)의 경우에는 위 세 과정 중에 두 번째와 세 번째 과정을 결합해서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했지만, 이 두 여성 커플은 아이를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텍사스 주 베드포드Bedford에서 임신 전문의로 있는 캐시 두디Kathy Doody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블리스는 아이를 원했지만 자기가 직접 임신을 하는 것은 싫었습니다. 반면 애슐리는 블리스와 다르게 아이를 직접 낳길 원했었죠. 결국 애슐리가 임신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려 의사를 만나러 간 곳에서 이 커플은 아주 놀라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두디 선생님이 애슐리 뿐만 아니라 블리

스도 아주 잠시나마 아이를 뱌 수 있으니 해보겠냐는 것이었습니다. 두 여성들은 아이의 임신 과정을 공유할 수 있다는 기쁨에 동의했습니다.

임신 과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블리스의 난자를 채취해서 인보셀 캡슐로 옮긴 후, 전혀 알지 못하는 남성이 기증한 정자와 인공적으로 수정을 시키고, 그 인보셀 캡슐을 블리스의 질에 넣어서 5일간 수정란을 배양했습니다. 5일 동안의 배양이 있고 난 후, 캡슐에서 꺼내서 배아를 냉동시켰다가 애슐리의 자궁에 착상시켜 임신을 가능케 했습니다. 실제로, 이 임신과정은 성공하였고, 이 커플은 2018년 6월 8파운드 4온스(약 3.7kg)으로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의학적으로 대단한 사건이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시험관 아기 기술은 남녀 부부 사이에서 자연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일 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 되어 왔습니다. 인간은 원래 의학의 도움 없이 자연적으로 성관계를 통해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나팔관에 이상이 있거나, 심각한 남성 불임이거나, 유전적인 병을 가질 위험에 있는 등 다른 약물투여나 인공수정(Intrauterine Insemination, IUI)이 불가능할 때 마지막 수단으로 체외수정을 해왔습니다. 남녀 부부 사이에서 자연적인 방법으로도 아이를 가질 수가 없을 때 쓰여졌던 마지막 대안이었던 체외수정 및 배아 이식이 이번 레즈비언 커플의 임신 성공으로 인해 다른 동성 커플간에도 희망을 안겨주었다는 보도들이 많이 있는데요. 애슐리와 블리스의 이야기를 보아도 이름 모를 남성의 정자 기증에 없었다면 이 출산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역시도 여성과 여성이 아닌 ‘남성’과 ‘여성’의 생식력을 통해 이루어진 출산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이 모든 과정이 생물학적으로 남성의 정자와 여성의 난자의 만남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사

실”을 알고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잇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관 아기 기술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남녀 부부에게 자신의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유익한 기술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또 두 여성이 한 아이의 임신 과정을 공유하는 일은 과연 의학적으로 획기적인 일 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IVF 기술을 택한 다른 커플들과는 다르게 치료의 대안이 목적이 아니며 두 여성의 자기만을 위한 욕심(‘난 여자든 남자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사는 것이 좋다,’ ‘원래 불가능한 걸 알지만 남녀부부처럼 우리도 우리 아이가 하나 있었음 좋겠다’ 등)에 의해 만들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비전형적인 두 엄마 또는 두 아빠 사이에서 자라면서 겪을 혼란은 오로지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현재의 욕망에 가려졌고, 아이가 느낄 혼란은 지금 당장이 아니고 훗일이니 지금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과연 부모의 이런 생각과 태도가 정서적으로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